

# 해남에 '땅끝 순례문학관' 들어선다

## 64억 들여 고산 유물전시관 인근에 내년말 완공

### 지역출신 문학인 작품세계 집대성

내년말 해남군 해남읍 연동마을에 '땅끝 순례문학관(조감도)'이 들어선다. 해남군은 "고산 유물전시관 인근에 64억원을 들여 오는 2013년말 완공 예정으로 '땅끝 순례문학관'을 건립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통해 땅끝 순례문학관을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해남출신 문학인과 그들의 작품세계를 집대성한 '시문학 1번지'로 만들 계획이다.

군은 지난 13일 군청 상형실에서 지역 문학인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땅끝 순례문학관' 건립 기본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땅끝 순례문학관'은 해남출신 문학인들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북카페,

문학공원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으로 건립된다. 문학관의 시작은 금남 최부과 임영령·유희춘·백광훈, 윤선도 등 조선시대를 풍미한 해남문인들의 생애와 문학작품을 그래픽 패널과 모형, 미디어 테이빙 등 상설 전시실로 연출된다.

또 이도주·박성룡·김남주·고정희 등 해남을 대표하는 현대 시인들의 문학작품을 영상으로 감상하고, 이들의 집필공간과 개인 소품 등을 연출해 철학과 시대정신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결합해 사색하도록 관람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시각과 청각을 이용



한 시문학 감상 코너 등 오감을 자극하는 전시 기법을 활용한다. 문학관 외부에는 문학 자연공원을 조성해 작가들의 작품을 새긴 기억의 벽과 각종 조형물 등을 통해 관람객들이 자연과 문학작품이 어우러진 순례길을 조성하게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해남은 조선시대 문인과 근현대 시인 등 160여 명을 배출한 문학의 고장"이라며 "순례문학관이 들어서면 고산 윤선도 유적지를 비롯해 문학 답사 루트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 동화책 읽어주고 안마도 해주고...

### 함평 '올리사랑 실천 프로그램' 눈길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올리사랑)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내리사랑'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같이 뒷사람의 아랫사람에 대한 사랑을, '치사랑'은 그 반대를 일컫는다. 함평군이 마련하고, 관내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올리사랑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학생과 요양시설 노인이 서로 짝꿍을 맺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안마도 하면서 함께 마음을 나누는 프로그램

이다. 처음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모집정원 57명을 초과한 79여 명이 참여하는 등 호응을 모으고 있다.

학생들은 최근 함평 군립요양원과 원광 실버하우스, 정겨운 들안 등 관내 요양시설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 처음엔 어색해 하던 청소년들은 노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도우면서 점차 가까워졌다. /서부취재본부=황윤희기자 hwang@

##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활동 강화

### 해남보건소, 순회 교육

해남군이 '뜨뜨가무시증' 등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활동에 나서고 있다. 해남군 보건소는 환자의 대부분이 매년 9~11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마을별 순회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뜨뜨가무시증'이 많이 발생한 마을을 중점 예방활동 지역으로 선정해 집중 홍보하고 있으며, 기

제 등을 배포하며 감염예방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야외활동 후 두통과 고열, 오한과 같은 심한 감기증상이 있거나, 벌레에 물린 곳이 있으면 지체 말고 가까운 보건소나 병·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남군 보건소 관계자는 "논밭 작업이나 야외활동 시 기피제를 뿌리거나 긴소매, 긴바지, 앞막, 장화를 착용해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 천년의 사랑, 상사화로 피어나다

## 영광·함평서 꽃무릇 축제



화엽불상견(花葉不相見), 꽃과 잎이 서로 만날 수 없다고 해서 '상사화'(相思花)라고도 불리는 꽃무릇. 매년 9월이면 영광 불갑산(해발 516m) 일대는 붉은 웅덩이로 뒤덮인다. 이번 주말에 고창 선운사와 함께 국내 3대 꽃무릇 군락지로 손꼽히는 영광 불갑산과 함평 용천사에서 꽃무릇 축제가 펼쳐진다.

◇영광 상사화축제="제12회 영광 불갑산 상사화축제"가 "천년의 사랑, 상사화로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오는 21~23일 사흘간 불갑산 관광단지 일원에서 열린다.

영광 불갑산 상사화축제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상사화를 주제로 한 학술·공연행사와 나만의 곱 만들기·상사화 탁본·압화공예 체험, 명화 그리기, 토퍼어리 체험 등 12종의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상사화 학술대회와 상사화 예술제, 상사화 시·수필 공모전, 상사화 디카사진 공모전 등 문화행사도 열린다.

영광군은 금호고속과 협력해 축제기간 동안 1일 4회(광주출발 오전 8시 10분·10시 10분·오후 12시 10분·4시 10분, 불갑출발 오전 10시·12시·오후 2시·5시 45분) 임시 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함평 꽃무릇 큰잔치="제21회 면민의 날 및 꽃무릇 큰잔치"가 오는 22~23일 함평군 해보면 용천사 꽃무릇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해보면 주민들은 지난 2000년부터 매년 9월에 꽃무릇 큰잔치를 개최하고 있다.

해보면 꽃무릇 큰잔치 추진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22일 오전 꽃무릇 공원 주무대에서 보병학교 군악대와 사물놀이패의 개막행진을 시작으로 막이 오르며 기념식, 장기자랑, 면민 화합 한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23일 오후 2시부터 특설무대에서 아이넷TV 노래자랑 녹화가 진행되며 초대가수의 공연과 노래자랑이 열린다. 천연삼주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등의 체험행사와 함평 농축산물 판매장, 먹거리 장터 등도 운영된다.

이철형 해보면장은 "풍성한 가을날 붉게 물든 꽃무릇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맺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황윤희·조익성기자 hwang@

## 전 북

# 군산 해상매립지 개발 '올스톱'

## 인접 서천군과 갈등에 국토부 용역 전면 중단

국토해양부가 군산항 준설토 투기장(해상 매립지)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중단함에 따라 군산시의 현안인 해상매립지 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전망이다.

군산시는 "국토해양부가 군산항 준설토 투기장(해상매립지)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시작 용역을 최근 전면 중단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해상매립지 활용방안 구축 용역과 관련, 금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인접한 군산시와 서천군의 견해 차가 크고 이 때문에 양 주민 사이의 갈등이 깊어져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당초 내년 4월 말 이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해상매립지에 교량을 건설해 '진수(親水) 공간'을 조성하려던 군산시의 계획이 큰 차질을 빚게 됐다.

군산지역 사회단체는 "군산시와 충분한 협의 없이 내린 국토부의 즉흥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금강을 사이에 둔 군산시와 충남 서천군은 그동안 금강하구둑 철거문제와 새만금권 시·군 통합문제 등으로 대립각을 세웠다.

서천군은 국토부의 군산항 준설토 투기장 용역에 대해서도 '군산 해상

도시 건설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금강하구를 황폐화하는 군산 내항내 준설토 투기장의 활용방안 구축 용역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해 왔다.

용역을 재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천군과의 협의가 전제돼야 할 것으로 보여 군산시의 추후 대응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용역 중지결정 소식을 듣고 당혹스러웠다"면서 "국토부의 중단사유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 단신

### 전주 가정센터 '행복한 가정만들기' 교육

전주시 건강가정지원 센터(센터장 정혜정)는 결혼생활기간이 20년 이내인 부부를 대상으로 20일, 27일, 10월 13일 오후 7시에 센터 2층 교육실에서 '행복한 가정만들기'라는 주제로 출산장려부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부부관계의 중요성 및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까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주제로 진행된다. 여성가족과 최은주 과장은 "부부상호간 존중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출산양육 환경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군산 월명초교 학교숲 우수사례 선정

군산시 월명초등학교(교장 김진규)가 지난해 진포중학교에 이어 최근 산림청 주관의 모델학교 우수사례로 선정돼 2013년 학교숲 조성사업 인센티브 예산을 지원받는다. 산림청은 각 시·도별로 제출된 학교숲 조성사례를 광역권별 2개교를 선별해 1차서류 심사 후 전문가들의 2차 현장평가를 거쳐 11개 학교를 선정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학교측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설계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학교숲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해 조성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 정읍시, 농업인 상담소 개소식

도·농 통합도시인 정읍시가 동(洞)지역 농업인들을 위한 상담실을 마련했다. 시는 농소동 농산물 도매시장 뒤편에 상담소를 마련하고 지난 13일 개소식을 가졌다.

상담소는 앞으로 상담소장 1명이 상시 근무하며 영농현장 서비스 강화는 물론 체계적인 농업기술 상담 및 현장애로기술 해결 등에 나선다. 또 농업인간 선진농업 기술과 정보습득 교류는 물론 화합과 친선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 한편 정읍지역에는 15개 읍·면과 농소동 등 모두 16개소의 농업인 상담소가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parkks@

### 순창군, 이시형 박사 초청 건강 특강

순창군 주민자치대학은 지난 13일 이시형(78·힐리언스 선마을 촌장) 박사를 초청해 '자연의학과 생활건강' 관련 특강을 가졌다.

이 박사는 "의사는 치료를 도와주는 사람에 불과하며, 의사 없이도 절로 자연치유력으로 나게 된다"며 "학습과 체험을 통해 생활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 "김제서 한학·선비문화 체험하세요"

### 내달 10~14일 지평선축제

### 지역 체류 관광객 모집

김제시가 제14회 지평선축제(10월 10~14일) 기간에 지역에 머물며 축제를 즐길 관광객을 모집한다.

시는 축제를 체류형 관광과 연계하기 위해 유(儒)·가(家)·사(寺) 스테이, 지평선 마린리조트 등 체험형 숙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한학과 선비문화를 체험하는 '학성강당 스테이' ▲외국인과 지역 가정을 연결해주는 '외국인 홈스테이' ▲전통사찰과 불교문화를 엮는 '금산사 템플스테이' ▲시골 마

을회관에 머물며 넉넉한 인심을 맛보는 '지평선 사랑방'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또한 최대 65% 할인된 가격으로 숙박시설과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지평선 마린리조트 수상체험'도 펼쳐진다.

시는 관광객 참여와 야간 체험을 높이기 위해 '지평선을 밝혀라 도전 2012! 벽골제 햇불 퍼레이드'와 '지평선 야간 놀이마당', '지평선 사랑의 등불 밝히기'와 같은 야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세부내용은 축제 홈페이지(festival.gimje.go.kr)를 참조하거나 축제기획단(063-540-3033)에 문의하면 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순창, 블루베리 경쟁력 강화 나서

### 농기센터, 전문가 인력 양성 교육

순창군이 블루베리 공동 브랜드(한울베리) 개발에 이어 전문가 인력 양성 등 지역 블루베리의 경쟁력 강화에 발벗고 나섰다.

군은 지난 13일 농업기술센터에서 90여명의 농가를 대상으로 블루베리 전문가 양성반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로 9번째인 이번 교육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김원규·한만중 박사를 초청해 농인인 스스로 병해충을 사전에 진단하고 방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블루베리 연구회 이상문(56) 회장은 "총 10회로 추진되고 있는 블루베리 전문교육은 재배농가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 군이 블

루베리 재배농가의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블루베리 연구모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공동브랜드 '한울베리' 개발에 따라 블루베리 재배농가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2013년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인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을 신청했으며, 앞으로도 재배면적 확대와 전문가 양성, 가공사업 지원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남원출신 재일 기업인인 심재명 선생의 선행을 기리는 공적비 제막식이 지난 14일 열렸다.

## 재일기업인 심재명 공적비 건립

### 남원 주생면사무소서 제막

남원출신 재일 기업인의 애환심을 기리는 공적비가 세워졌다. 남원시는 지난 14일 주생면사무소 앞 마당에서 심재명(86·전 화림공업 대표)씨의 공적비 제막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완주 전북도지사,

장전배 전북도경찰청장, 이환주 남원시장, 강동원 국회의원, 김성범 남원시의회 의장 등을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주생면 반송마을에서 태어난 심씨는 1949년에 강제 징용된 부친을 찾아 일본으로 건너간 후 고생 끝에 히로세·

아이도루·세화·화림 등의 공업주식회사를 일인간 대기업주로 성공했다.

특히 심씨는 자수성가한 후 고향을 찾아 기금 1억원을 쾌척해 춘향 장학재단 설립 토대를 마련한 것을 비롯해 ▲남원경찰서 실내체육관 건립(1억 5000만원) ▲남원시 아동급식비·장학금 지원(연 1억6000여만원) ▲일본 선진지 견학지원(2179명) ▲남원 노암동에 화림공업주식회사 설립(주민 300여명 고용) 등을 통해 주생면은 물론 남원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